듣는 강론

가톨릭마산

연중 제2주일
2024년 1월 14일
제2600호

메시아이신 주님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1사무 3,3ㄴ–10.19
화 답 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 2 독 서	1코린 6,13ㄷ–15ㄱ.17–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 음	요한 1,35–42
영 성 체 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그분을 만남- 우리의 변화

박태정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구암동본당 주임

오늘 복음은 어떻게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지 50년 혹은 60년이 되어 자신의 복음서를 썼지만, 예수님과 첫 만남의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요한 1,39)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요한의 생애 동안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있는 몇 가지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과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을 때, 세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36) 이렇게 그분의 "지나가심"을 통한 제자들과의 만남이라는 단계.

>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로 데려오려고 노력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들이 당신을 더 깊이 알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려는 열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복음은 이 초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와서 보아라."(요한 1,38-39)

셋째,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모습을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요한 1,39)

유다인들에게는 날이 저물 때가 새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함께 보낸 밤 시간은 안드레아와 요한에게는 '새로운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안드레아가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과의 시간은 안드레아와 요한을 제자가 되게 함과 동시에 그 만남에서 체험한 것들을 나누게 합니다. 안드레아는 달려가서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고(요한 1,42) 요한도 그의 형 야고보에게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도록 제자들을 이끄셨던 방식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로 데려오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024 교구 사제 정기인사

교구 사제들의 인사를 2024년 1월 5일 부(천마교 2024-6)로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사제명	부임지	전임지
정흥식	성사전담	남성동 주임
허철수	성사전담	북신동 주임
권창현	성사전담	중앙동 주임
조명래	교포사목(태국 파타야)	성사전담
박창균	사림동 주임	월남동 주임
김길상	성사전담	팔용동 주임
차광호	성사전담	용원 주임
장민현	용원 주임	사파동 주임 겸 창원지구장
채동호	수산 주임	안의선교 주임
이성렬	의령 주임	요양
함영권	함안 주임	창원종합사회복지관장
김화석	중앙동 주임	장승포 주임
양태현	중동 주임	생림선교 주임
곽준석	대산 주임	그라츠 현지사목
이청준	사파동 주임 겸 창원지구장	안식년
송재훈	안식년	수산 주임
김대열	석전동 주임	옥포 주임
김종필	북신동 주임	중동 주임
김정훈(라)	안식년	교포사목(미국 덴버)
윤행도	월영 주임	경화동 주임
강철현	산호동 주임	월영 주임
이정근	기획관리국장 겸 가톨릭문화원장	기획관리국장
정철현	고성 주임	의령 주임
박인수	팔용동 주임	함안 주임
박혁호	옥포 주임	교정사목 겸 가톨릭문화원장
김정훈(도)	광주가톨릭대학교	가르멜의 모후 수도회

사제명	부임지	전임지
노중래	교포사목(미국 덴버)	석전동 주임
김형렬	성소국장	안식년
정연동	안식년	사림동 주임
강병모	안식년	대산 주임
이정림	용잠 주임	안식년
박태정	가르멜의 모후 수도회	구암동 주임
임해원	남성동 주임	장재동 주임 겸 병원사목
최문성	구암동 주임	성소국장
진동길	교정사목	교정사목 협력사제
한주인	장승포 주임	고성 주임
김 용	사무처 차장	산호동 주임
변종원	월남동 주임	광주가톨릭대학교
주효상	경화동 주임	교포사목(태국 파타야)
박종선	사회복지국 부국장	용잠 주임
김승태	장재동 주임 겸 병원사목	군종
허기원	안의선교 주임	양덕동 보좌
정재덕	생림선교 주임	사파동 1보좌
이승언	반송 보좌	해외유학
김동윤	사파동 1보좌	교포사목(미국 LA성삼 보좌)
심정현	면직	유학(로마)
계강준	양덕동 보좌	대방동 보좌
김 현	대방동 보좌	신안동 보좌
임태근	교포사목(미국 LA성삼 보좌)	명서동 보좌
정병진	명서동 보좌	사파동 2보좌
신승혁	월영 보좌	반송 보좌
남하늘	사파동 2보좌	월영 보좌

●**인수인계일:** 1월 16일(화) 10:00
- ○장소: 교구청 각 국장실/ 2층 회의실(1층 대회의실 대기)
- ○참석대상: 본당 신부, 사목협의회장, 사무장

●**부임일:** 1월 19일(금)

▶사제 이동 시 신자들의 동반을 삼가 바랍니다.

■**초임 주임 신부 본당파견과 신앙고백**

대상: 변종원 신부, 주효상 신부, 김승태 신부,
허기원 신부, 정재덕 신부

일시: 1월 16일(화) 13:30

장소: 교구청 성당

직무교육: 14:00 사무처장 집무실

경남지역 신앙 터전 3년, 조선의 복음화 염원 55년
에밀 타케 신부

황광지 가타리나

에밀 요셉 타케(Emile joseph Taquet/ 엄택기 1873~1952)

에밀 타케는 1873년 프랑스 노드주州에서 태어났다. 파리외방전교회에서 24세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다음 해인 **1898년 1월 한국 땅**을 밟은 후 죽을 때까지 한국을 떠난 적이 없다. 그에게 한국은 제2의 조국이었다.

제8대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 때이다. 에밀 타케 신부는 25세에 조선에 입국하여 4개월 만에 부산본당 세 번째 신부로 발령을 받았다. 관할구역은 경남 전체였다. 진주지역 교우들이 여러 차례 뮈텔 주교에게 신부를 보내 달라고 탄원서를 내었고, 타케 신부가 신설 본당을 자원한 덕분에 **1899년 6월 진주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신자들이 마련한 집 옆에 또 한 채의 집을 매입하여, 먼저 집은 성당으로 두 번째 집은 사제관으로 개조했다.

진주본당은 1년 만에 철수되고

조선말이 서툰 타케 신부가 부임했는데, 비라실(장재리) 교우 몇몇이 포졸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다는 보고를 받았다. 현지 사정에 어두웠던 타케 신부는 대구의 로베르 신부에게 도움을 청했고, 로베르 신부는 진주관찰사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뒤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며칠 뒤 타케 신부는 무사히 교우들을 풀어낼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지켜본 진주 교우들은 타케 신부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타케 신부는 자신을 도와야 할 복사가 험한 말썽을 일으켜, 외인들의 신뢰를 잃게 된 일을 겪고 실의에 빠졌다. 거기다 진주본당은 대부분 공소 교우들이고, 시내 교우가 별로 없는데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진주에서 1년을 보낸 타케 신부는 본당을 옮기기로 하고 뮈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주성당은 술집과 접대부와 아전만 사는 거리에 있다. 그런데다 건물이 낡아 위험하다. 수리하려니까 2백 원이란 엄청난 돈이 든다."라고 썼다.

마산포본당에서 경남지역 사목

본당 이전을 결심한 타케 신부는 후보지 물색에 나서, 결국 마산으로 정했다. 진주를 결정적으로 떠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거처를 일단 비라실공소로 옮겼고, 이곳에서 8일간 지내다 진주를 떠났다. 타케 신부의 진주본당은 1년 만에 철수되었고, **1900년 6월 마산으로** 떠났지만 판공 때면 진주를 방문했다.

타케 신부는 마산(당시는 마산포)에서 조선인 밀집지역에 세 칸짜리 본체에 두 칸짜리 헛간이 붙은 집을 600냥에 매입했다. 지금의 상남동과 오동동 일대였다. 이 초가집 성당은 성지여고 터 훨씬 아래 시내 쪽 가까이에 있었다. 당시 마산포본당이 소유한 땅은 현 완월동성당과 장군천 사이에 있었던 대부분의 논밭이었다. 타케 신부와 무세 신부가 그 논밭을 차례로 매입했다. 그는 1901년 10월에 프랑스에 있는 부친의 선종 소식을 듣게 되어 큰 슬픔을 안았지만, 교우들에게 부친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견뎠다. 타케 신부는 마산포에 있으면서도 진주, 함안, 삼가, 거제, 통영, 고성, 욕지도, 창녕 등 관할지역의 공소를 돌면서 성사를 집전하고 미사를 올렸다.

에밀 타케 신부는 제주도에서 트라우마를 갖게 된 무세 신부와 맞바꾸어 **1902년 4월 제주** 서귀포 한논본당(현 서귀포본당)으로 떠났다. **경남지역에서 비록 3년 정도의 사목이었으나 그가 곳곳에 남긴 노력과 흔적은 마산교구 신앙의 터전이 되었다.** 어디서든 선교사의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제였다.

한국 식물분류학계에 '타케' 이름을 남겨

제주에서 타케 신부는 식물채집에 나섰다. 파리외방전교회에서 일본에 파견한 식물학자 포리 신부가 제주를 찾아 함께 한라산을 누비며 식물채집을 했고, 이를 통해 제주의 자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홀로 한라산 일대를 헤매면서 얻은 그의 채집 표본은 여러 경로를 거쳐 유럽 각국에 전달됐다. 타케 신부가 식물채집에 몰두했던 것도 경제적인 이유가 컸던 것이라고 했다. 성당 건립과 선교 활동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다. 당시 식물 표본은 꽤 돈이 됐다. 그는 1908년 한라산에서 왕벚나무를 발견하여 유럽 학계에 보고하였다. 일본에 있는 포리 신부에게 왕벚나무를 보내고 답례로 1911년 온주밀감 묘목 14그루를 받아 심게 된 것이 제주 온주밀감의 첫 시작이었다. 서귀포시 '면형의 집' 앞에는 그중 살아남은 한 그루가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다. 그가 한국 식물분류학계에 남긴 흔적은 뚜렷하다. 7040여 종의 식물을 채집해 유럽에 보낸 표본 중 250여 종이 신종으로 분류됐다. 그중 학명에 '타케'가 들어간 식물만 20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에밀 타케 신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에밀 타케의 표본전〉을 서귀포 면형의 집에서 열기도 했다.

사람을 사랑하고 왕벚나무를 좋아한 타케 신부

에밀 타케 신부는 1902년부터 제주에서, 1915년부터 목포 신정본당에서도 사목했다. 1922년 대구가톨릭대 전신인 성유스티노신학교 교수로 부임해 교장을 거쳐 심장마비로 눈을 감기까지 대구에서 30년을 보냈으며, 대구대교구 성직자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왕벚나무를 좋아한 그는 부임한 곳마다 왕벚나무를 심었다. 대구대교구청 인근 곳곳에 그 왕벚나무가 있고, 마산교구 성지여고의 교정에도 왕벚나무가 있다.

뮈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 타케 신부의 기록이 전해지는데, 특히 돈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저는 돈이 없이 죽어도 괜찮지만 하느님의 대리자로 빚을 지거나 파산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며 주교를 압박하고,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영세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작은 두루마기를 사줄 것이며,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겠다, 교리 공부에 열의가 없는 아이들도 좀 더 격려해야겠다는 소소한 내용도 등장한다. 그는 조선에서 55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간 적 없이 조선의 복음화에 몰두했다.

▶참고: 〈천주교마산교구40년사〉 〈삼천포본당50년사〉 〈완월동성당120년사〉 한국순교복자수도회 면형의집 자료, 천주교대구대교구 자료

'가톨릭마산(교구보)' 1월 14일 자부터 매월 둘째 주에 '교구에 이바지한 인물'이 게재됩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이억민(바오로) 신부

1996년 1월 17일

교구장 서리 동정

꾸르실료 강의
일시: 1월 19일(금)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전국 사목국장회의(1박 2일)
일시: 1월 18일(목)~19일(금)/ 장소: CBCK

전국 성소국장회의(비대면-화상회의)
일시: 1월 18일(목) 11:00

복사학교 1차(마산·진주지구)
일시: 1월 15일(월)~16일(화) 1박 2일

복사학교 2차(창원·거제지구)
일시: 1월 16일(화)~17일(수)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인수인계
일시: 1월 16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새사제·초임 본당 주임 신부 신앙고백 및 직무교육
일시: 1월 16일(화) 13:30/ 장소: 교구청

새임지 부임
일시: 1월 19일(금)

주일학교 대표 교리교사 연수
일시: 1월 21일(주일) 10: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1월 기도모임
일시: 1월 22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시티(11:06)-현대주유소(11:16)-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 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월 20일(토)~21일(주일)
2월 24일(토)~25일(주일)
3박 4일- 2월 15일(목)~18일(주일)
3월 7일(목)~10일(주일)
8박 9일- 1월 29일(월)~2월 6일(화)
3월 14일(목)~22일(금)
40일- 4월 11일(목)~5월 20일(월)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성독)
일시: 1월 27일(토) 10:00~16:30/ 준비물: 성경
장소: 부산 분도명상의집/ 참가비: 3만 원
문의: 010·3271·0766(권벨라뎃다)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겨울 성소피정
일시: 1월 26일(금)~28일(주일) 2박 3일
장소: 안토니오 피정의 집(서울 평창동)
주제: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대상: 35세 이하의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
접수: 선착순 모집
문의: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1차-3월 21일(목)~23일(토)
2차-4월 10일(수)~12일(금)
3차-5월 6일(월)~8일(수)
4차-6월 6일(목)~8일(토)
5차-9월 25일(수)~27일(금)
6차-10월 10일(목)~12일(토)
7차-11월 25일(월)~27일(수)
장소: 왜관 피정의집
연화리 피정의집(3차, 6차)
참가비: 25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예금주-(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원서: https://uus.pauline.or.kr / 1월 31일(수) 마감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110주년 기념(명동성지 피정)
일시: 8월 20일(화) 11:00~16:00
장소: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대상: 바오로가족협력자 회원, 레벤북스 회원
진행: 박득태 루카 신부
강의: 양은철 안드레아 신부/ 순례기도: 모임별 회장단
레크레이션: 이해동 라파엘 신부
파견미사: 이창항 세바스찬 신부
주최 및 문의: 바오로가족협력자회
02·944·8421, 010·9752·8421 레벤북스 010·2557·1361

2024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 영성센터 02·726·0700, 0701
www.jjscen.or.kr 게시판 참고

창녕본당 제26대 연임 사목협의회

사목협의회장: 김정식(암브로시오)
사목협의회부회장: 김광태(미카엘)
총무분과위원장: 정연우(클라라)
총무분과-청년담당: 한규리(레지나)
총무분과-교육담당: 김원이(마리나)
전례분과위원장: 성홍자(레지나)
시설분과위원장: 유춘욱(프란치스코)
복지분과위원장: 이경자(마리아)

진교본당 제20대 사목협의회

사목협의회장: 빈명기(사도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천상근(니콜라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강둘분(아가다)
총무(기획): 유호경(도미니코)
선교분과위원장: 장숙경(아녜스)
전례분과위원장: 홍영희(리디아)
구역분과위원장: 강복점(엘리사벳)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정종임(세실리아)
교육분과위원장: 강분선(카타리나)
청소년분과위원장: 배선희(에스테르)
시설,홍보분과위원장: 김영경(라파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주명희(스콜라스티카)

상남동본당 제28대 사목협의회

사목협의회장: 문형호(레오나르도)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동원(도마)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명옥녀(노엘라)
총무: 안병진(대건 안드레아)
기획재경분과위원장: 서경곤(사도요한)
복음화분과위원장: 김부희(아녜스)
전례분과위원장: 진귀남(젬마)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황외숙(스테파니아)
가정·청소년분과위원장: 오행임(데레사)
구역분과위원장: 지순남(데레사)
시설관리분과위원장: 박치형(그레고리오)
홍보분과위원장: 조종래(바오로)
생태환경분과위원장: 이진섭(요한)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분야: **주방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청소 1명**(출·퇴근)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 사제 추천서
마감: 1월 28일(주일) 16:00 이전(방문, 우편, E-mail/우편 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E-mail: cecomasan@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월 15일(월) 19:00	중앙동성당	모든것을 작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	황인숙 마리아(서울대교구)	최용진 이냐시오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월 20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지금여기사진관
김찬우(사도요한) 010-8949-7901
위치:창원 용지호수앞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 · 248 · 3089/ 010 · 9753 · 308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성체성사와 교회법 (1)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Q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모든 신자들은 미사에 자주 참례하고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심으로써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성체성사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교회법에서는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915조)라고 가르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에 합당한지를 성찰하며 미사 전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의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서는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919조 1항)라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으로 모시기 위해 마땅히 우리의 몸도 공복을 지키며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수 있다."**(919조 3항)라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영성체를 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받아 모신 것에 대한 감사와 흠숭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힘을 받았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Q 성체를 모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체는 성사 생활의 정점이기 때문에 가톨릭교회는 성체와 관련해 엄격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체에 대한 모독행위는 가톨릭 신앙의 가장 거룩한 것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성체를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이들에게는 강한 경고와 제재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빼어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않는다."**(1382조 1항)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체를 내던지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체를 경멸하거나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등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불순하고 미신적인 목적으로 성체를 보관하거나 고의적인 모독 행위의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중대한 죄로 간주되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습니다.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은 일반 본당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고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심각성을 알아야 하며, 성직자로서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는 성직자 신분의 제명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성체 안에 있음을 믿으며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성체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드러내고, 올바른 준비와 자세로 그리스도의 몸을 충실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섬과 사막 사이

유희선 가타리나 시인/ 가톨릭문인회

섬에서 나와 사막으로 달리고 있다. 이십팔 년을 살았던 곳이 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향이 그렇고, 십일 년의 이국 삶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정착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은퇴가 다가올수록 다시 떠나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이방인이 되지 않으려 애썼던 창원살이, 붙박여 살 수 있었던 그 시작과 중심은 언제나 성당이었다.

외국에서도 성당은 그런 곳이었다. 뿌리가 깊지 못한 초보 영세자였던 내게 신앙은 '질문투성이'였지만, 성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다듬어나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 나는 한 나라임에도 문화가 극명하게 다른 북부 미네소타와 남부 댈러스의 한인교회를 경험했다. 이민자 수와 직업군이 달랐던 두 지역의 교회는 규모 면에서나 신자들의 입김, 그리고 오시는 신부님의 성향까지 달랐던 것 같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어서 많은 것이 변했겠지만, 이민자들이나 곁들여 지내던 그곳 유학생과 가족들에게 교회는 상상보다 더 큰 의미였다. 많은 가족과 끈끈하게 지냈지만, 창원에서 살면서 그 관계는 아득해졌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그때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작은 섬처럼 동떨어져 있었다. 그 느낌은 결혼 전의 삶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그 빈번했던 서울 나들이에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전시 하나를 보기 위해서 기차를 예매하고 그곳 공기를 쐬고 와야만 했었지만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나를 형성했던 고향의 모든 것과 예술 문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미 두 개의 섬이 생기고 난 뒤, 언젠가 이곳도 또 하나의 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지난 8월 말로 은퇴했다. 은퇴라는 큰 산을 넘기도 전에, 일말의 상념에 빠져들 새도 없이 재취업한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 예측 속의 후보지가 아니었던 강원도 평창으로 사무실과 실험실 짐을 서둘러 챙겨 일차적인 이사를 했다. 그날 밤 단지 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나는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디든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강원도라는 낯선 곳에 대한 막연한 흥분과 낭만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곳 특성상 도시는커녕 마을 생활권과도 완벽히 격리된 곳이었다. 느닷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유리창 밖 적막은 창살 없는 감옥처럼 두려움 자체였다. 성급한 결정이었을까? 남편은 두세 차례 방문했었던 터라 나와는 다르게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 걷잡을 수 없던 찰나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핸드폰으로 성당을 찾아보고, 그 위치를 가늠해 보았다. 자동차로 20분 거리쯤 되어 보였다. 멀지 않은 곳에 도서관도 있었다. 그때의 안도감이란……. 믿을 수 없는 평화가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곳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되었던 떠나는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젊은 날 궁금했던 상상 속의 그 미래가 어떻게 요약되어 가는지 점차 보이기 시작한다.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이쯤 되면 나의 운명과 하느님의 섭리도 조금은 눈치챌 수 있다. 사막은 언제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으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실현되는 것임을 알게 하신다.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곁을 주며,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들의 따뜻한 인정을 온몸으로 누렸다. 얕은 눈물로 대신할 수 없는 감사와 깊은 깨달음이다.

누군가는 한군데 머물면서 배우는 지혜를 누군가는 끊임없이 떠돌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서, 저울의 추처럼 평화가 공존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